



numbers
vol. 278

농어촌 목회의 현실과 미래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 ② '나이듦'에 대한 5060세대의 인식

[넘버즈 칼럼]

2025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2025. 3. 1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현재 우리의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감소, 산업화 영향 등으로 점차 낙후되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교인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농어촌 교회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대로라면 존속이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023년에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4년 8월, 농어촌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농어촌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 (47%)가 한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절반이 넘는 목회자(57%)는 향후 10년 내 교회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녹록지 않은 농어촌 목회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농어촌 교회 목회자 5명 중 1명(21%)은 10년 후 시무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 의견을 피력해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정통합 농어촌 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예정통합 소속 농어촌교회 담임목사																		
조사 방법	비대면/대면 설문 조사																		
표본 규모	<p>1,835명 (유효 표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령</th> <th style="text-align: center;">표본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백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대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2</td> <td style="text-align: center;">9.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781</td> <td style="text-align: center;">42.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841</td> <td style="text-align: center;">45.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응답</td> <td style="text-align: center;">31</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83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body> </table> <p>-전체 3,038개 교회 담임목사 대상 조사 (회수율 60.4%)</p>	연령	표본 수	백분율	40대 이하	182	9.9%	50대	781	42.6%	60대 이상	841	45.8%	무응답	31	1.7%	계	1,835	100.0%
연령	표본 수	백분율																	
40대 이하	182	9.9%																	
50대	781	42.6%																	
60대 이상	841	45.8%																	
무응답	31	1.7%																	
계	1,835	100.0%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조사 기간	2024년 2~3월 (약 1개월 진행)																		
조사 기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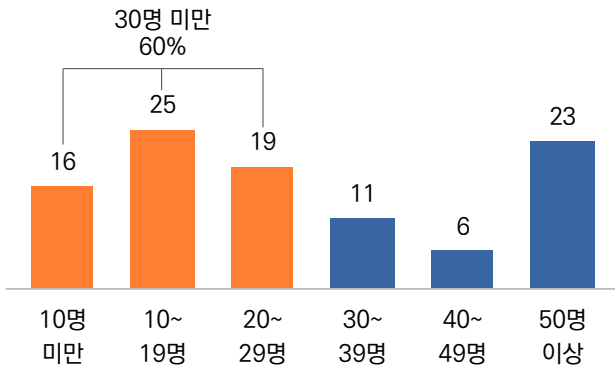
01

[농어촌 교회 실태]

전체 농어촌 교회 10곳 중 6곳, 출석 교인 수 30명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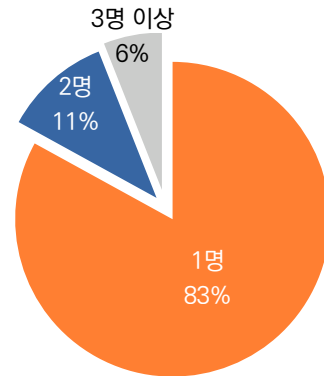
- 지난 주일예배에 출석한 성인 교인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19명'이 25%로 가장 많았다. 50명 미만인 교회의 비중은 76%, 30명 미만인 교회의 비중은 60%로 10곳 중 6개 교회에 해당했다.
- 교회의 교역자 수(담임목사 포함)는 '1명'이 83%로 가장 많았다. 담임목사 '나 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림] 출석 교인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Note)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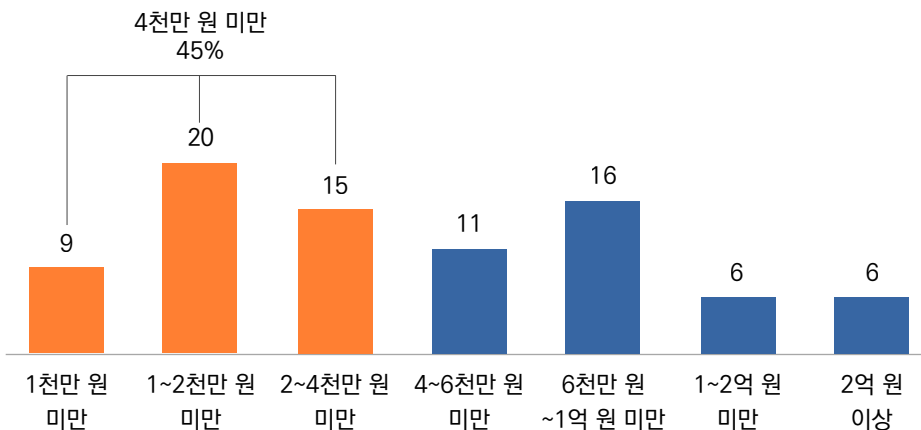
[그림] 교회 교역자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교회 1년 예산 4천만 원 미만, 45%

- 2023년 기준 교회의 연간 재정 규모로는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2천만 원 미만'은 총 29%, '4천만 원 미만'은 절반 가까이인 총 45%를 차지했다.

[그림] 교회 연간 재정 규모 (농어촌 교회 목회자, 2023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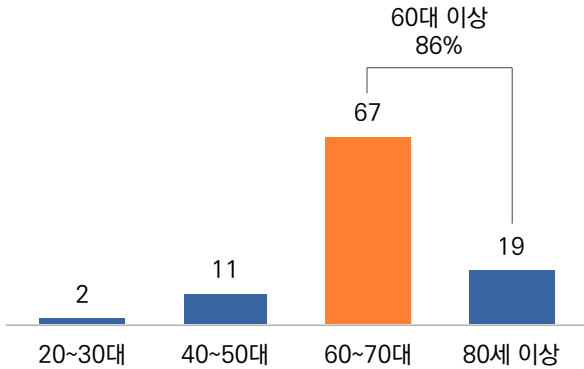


Note) '무응답' 제외

출석 교인 주 연령대, 60대 이상이 86%!

- 지난 주일예배 참석 기준으로 주 연령대를 물어본 결과, '60~70대'가 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0대 이상'이 19%로 높았는데, 주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86%에 달했다.

[그림] 출석 교인 주 연령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Note)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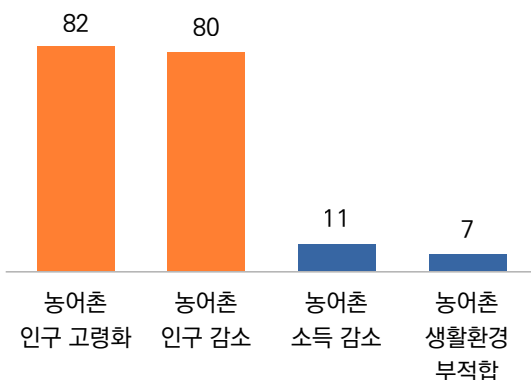
02

[농어촌 목회 인식]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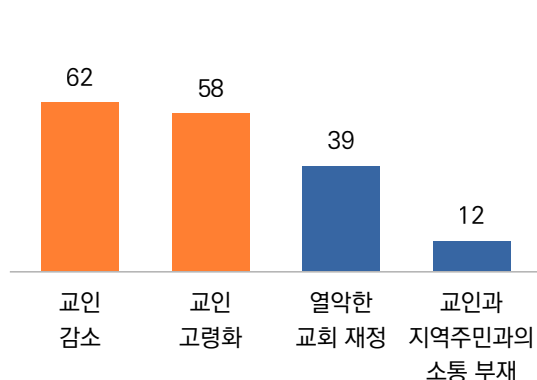
- 시무교회의 가장 심각한 외부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82%)와 '농어촌 인구 감소'(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부 문제로도 '교인 감소'(62%)와 '교인 고령화'(58%)가 가장 높게나, 내외부 문제 요인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인구 변동은 출생, 사망, 이동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어촌 교회의 고령화와 교인 감소 문제 역시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교회의 외부 문제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4위, %)



Note) '문제 없음', '기타',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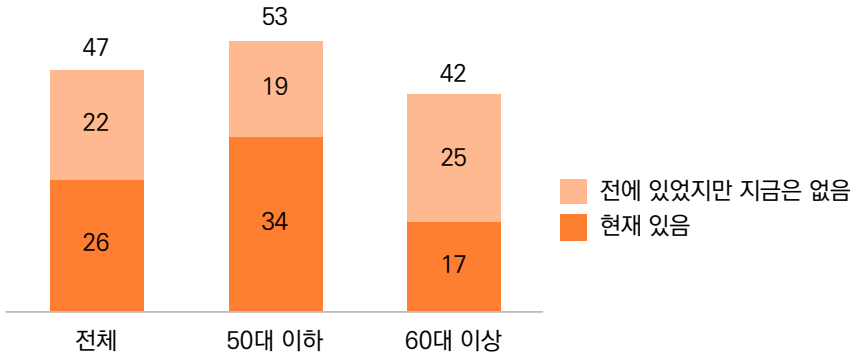
[그림] 교회의 내부 문제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4위, %)



농어촌 목회자 절반 가까이, ‘교회 떠날 생각 한 적 있어!’

- ‘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현재 떠날 생각이 있다’ 26%,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22%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47%에 달했다.
- 담임목사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5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현재 떠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34%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그림] 현 교회를 떠날 생각한 적 있는 비율 (농어촌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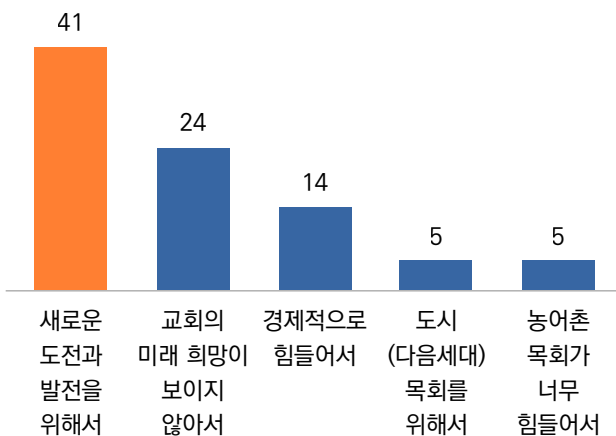


Note) 합이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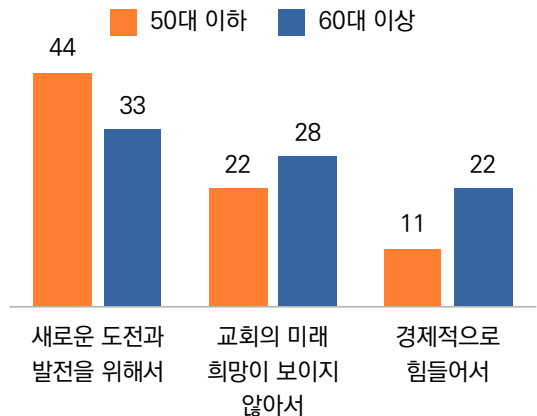
교회 떠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새로운 도전과 발전 위해!’

- 현재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41%),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24%), ‘경제적으로 힘들어서’(1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목회자는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 60대 이상 목회자는 ‘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 (현재 교회 떠날 의사 있는 목회자, 상위 5위, %)



[그림]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 (현재 교회 떠날 의사 있는 목회자, 연령별,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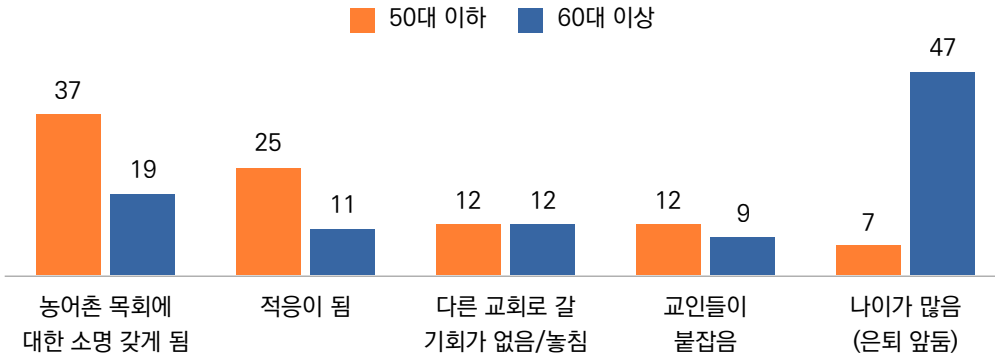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50대 이하 목회자의 교회 떠날 생각 접은 이유,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

-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었지만 철화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하 목회자는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됨'(37%)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적응이 됨'(25%)이 뒤를 이었다.
- 60대 이상 목회자의 경우 '(교회를 떠나기에는) 나이가 많음'(47%)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교회를 떠날 의사 철화 이유 (현 교회 떠날 의사 있었지만 철화한 목회자, 연령별, 50대 이하 기준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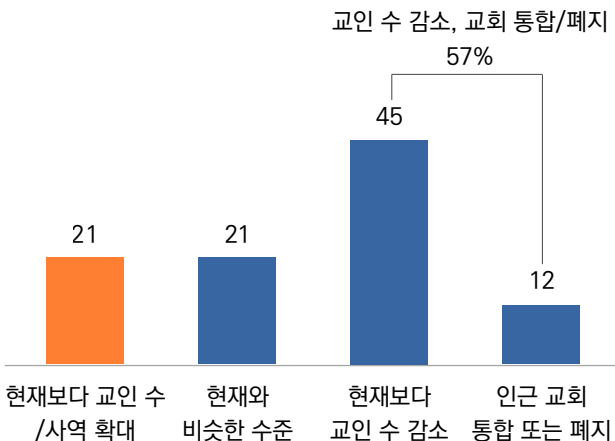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03 [농어촌 교회의 미래와 희망]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 교회 성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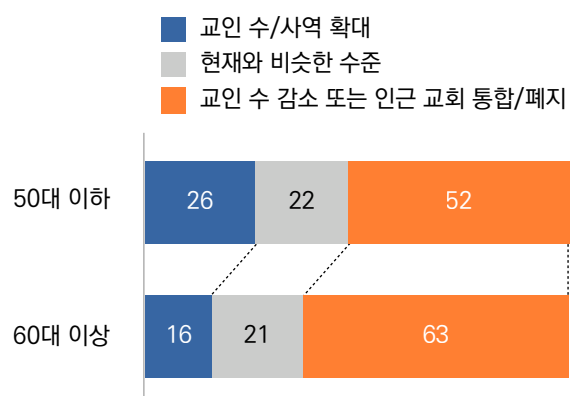
-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향후 10년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어본 결과,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교회 유지가 어려워 '인근 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될 가능성 있음'(12%)까지 더하면 57%가 현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현재보다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21%로 나타났다. 즉 5명 중 1명의 농어촌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목회자(26%)가 60대 이상 목회자(16%)보다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더 많이 내놓았다.

[그림] 10년 이후 교회 전망 (농어촌 교회 목회자, %)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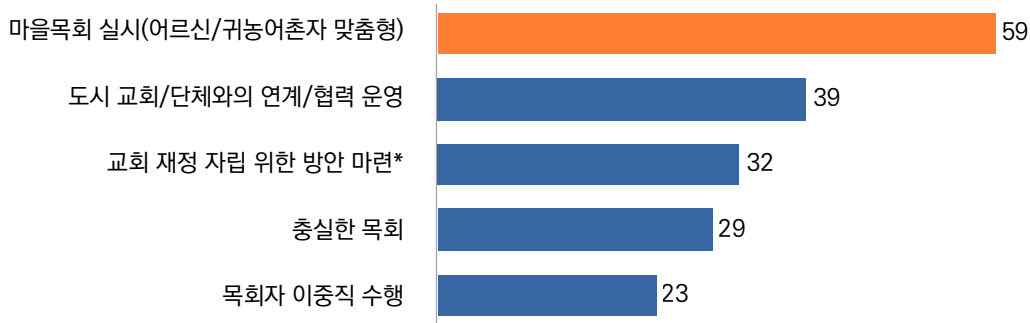
[그림] 10년 이후 교회 전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연령별, %)



농어촌 교회 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마을목회’!

- 이러한 농어촌 교회의 운영과 발전 위해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마을목회 실시’(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르신 돌봄이나 귀농·귀촌자의 필요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 외 ‘도시 교회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운영’(39%), 그리고 영농조합이나 교육센터와 같은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32%)이 뒤를 이으며, 농어촌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의견이 나왔다.

[그림] 농어촌 교회 운영/발전 위해 필요한 노력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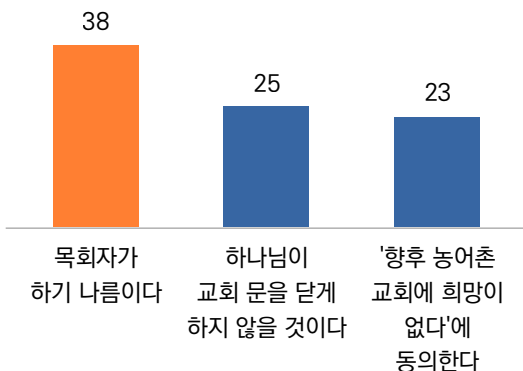


*영농조합법인, 지역복지센터, 교육센터, 힐링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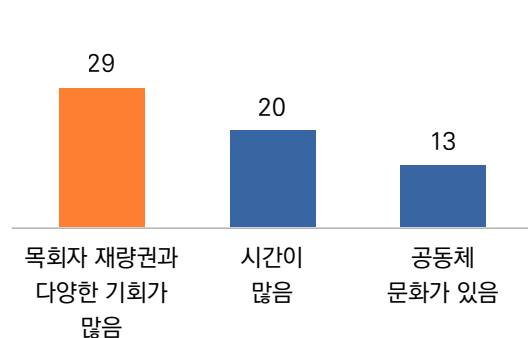
농어촌 목회자 10명 중 4명,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희망 있다’!

- ‘향후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목회자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응답이 38%로 희망 없다는 말을 거부하였으며, 이어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25%), ‘향후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목회자의 역량 또는 믿음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어촌 교회의 장점으로 ‘목회자 재량권과 다양한 기회가 많음’(29%)과 ‘시간이 많음’(20%)이 주요하게 꼽혔다. 이는 앞서 ‘목회자의 노력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하며, 농어촌 교회가 갖는 자율성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상위 3위, %)



[그림] 농어촌 교회의 장점 (농어촌 교회 목회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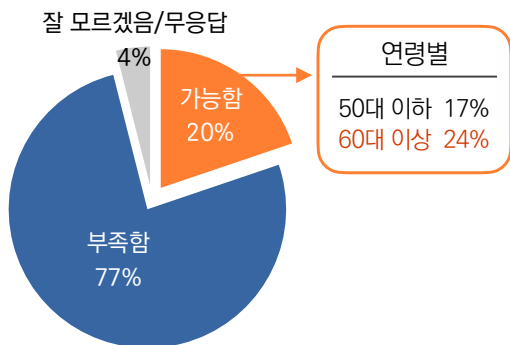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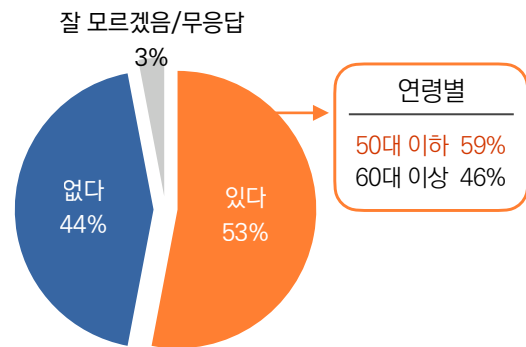
[농어촌 목회자의 경제 실태] 사례비만으로 생활 가능한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에 불과

-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 교회 사례비만으로 가정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어촌 목회자가 사례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가능하다’는 비율이 17%로 더욱 낮았다.
- 또한, 전체 응답자의 5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0대 이하 목회자의 부채 보유 비율은 59%로 평균보다 높아, 젊은 목회자일수록 자녀 양육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교회 사례비만으로 가정생활 가능 여부 (농어촌 교회 목회자)



[그림] 부채 유무 (농어촌 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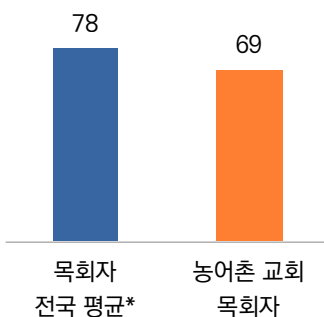


Note) 합이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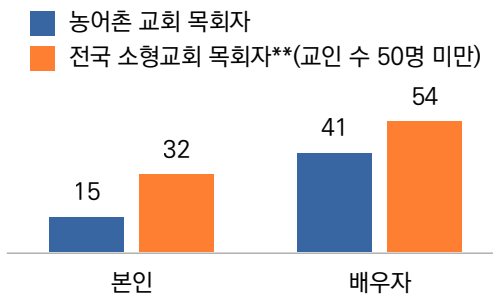
농어촌 목회자의 이중직 비율, 본인 15%, 배우자 41%!

- 목회 외에 다른 경제활동, 즉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이중직 찬성 비율이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다.
- 현재 이중직 여부에 대해서는 15%의 목회자가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50명 미만 전국 소형교회 목회자의 평균 이중직 비율(3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정도이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도 41%로, 전체 소형교회 목회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5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이중직 '찬성' 비율 (%)



[그림] 이중직 여부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05.2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이중직 참여를 위한 필요 사항, ‘직업 정보 제공’!

- 이번에는 현재 이중직 여부를 고민 중인 목회자(N=221)를 대상으로, 이중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질문했다. 그 결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중직 직업 정보 제공’(3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교육 지원’(21%), ‘경비 지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제적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림] 이중직 참여를 위한 필요 사항 (이중직 고민 중인 목회자, 상위 4위, %)



이번호 요약

1. 출석 교인 주 연령대, 60대 이상이 86%

- 지난 주일예배에 출석한 성인 교인 수는 '30명 미만'이 60%를 차지했으며, 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모두 86%에 달했다.

2.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 시무 교회의 10년 이후 전망을 물어본 결과, 57%가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45%)하거나 '인근 교회와 통합 또는 폐지'(12%)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21%로 나타났다.

3. 농어촌 교회 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마을목회'

- 농어촌 교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는 '마을 목회 실시'(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농촌교회는 절박합니다. (예장통합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김정운 위원장, C채널 굿데이)

관련 성경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16)

목회 적용점

농어촌 교인의 고령화와 감소는 교회 재정과 사역 인력 부족을 초래하며, 새로운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교회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교회 상황에 맞는 '마을목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농어촌 교회 조사*에 따르면 마을 목회를 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교회 규모가 작아서'가 꼽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목회의 강점으로 드러난 '목회자 재량권', '공동체 문화' 요인은 소규모 교회라도 마을 목회를 시작할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회를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점으로 바라보고, 농어촌 교회 간 연합 및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역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대 간 연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 사역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가 단기적 또는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도시 교회 청소년·청년을 위한 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다.

농어촌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교인 수 감소를 넘어 농어촌지역에 신앙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공동의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사명을 이어왔다. 이번 조사에서 5명 중 1명 꼴로 농어촌 목회자가 10년후 시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이야말로 농어촌 교회가 지닌 강점을 살리고,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내 지속 가능하고 강한 신앙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넘버즈 189호 참조(기독교대한감리회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2. '나이듦'에 대한 5060세대의 인식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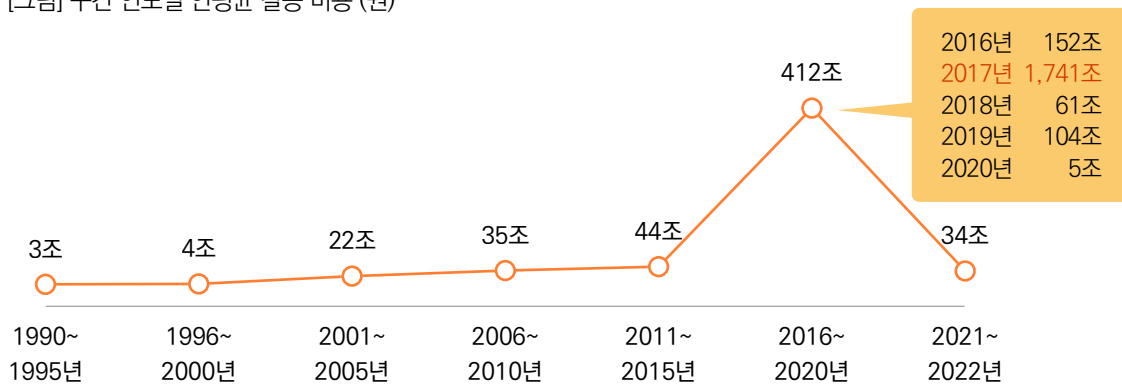
2025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도의 사회 갈등 비용 1,741조!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3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약 90% 수준을 기록해 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할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1990년 이후 발생한 사회적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 연도별 갈등 비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6~2020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2020년 연평균 갈등 비용은 412조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7년의 갈등 비용은 무려 1,7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해 국가 예산(401조)의 4.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탄핵정국에서 작년과 올해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구간 연도별 연평균 갈등 비용 (원)



※출처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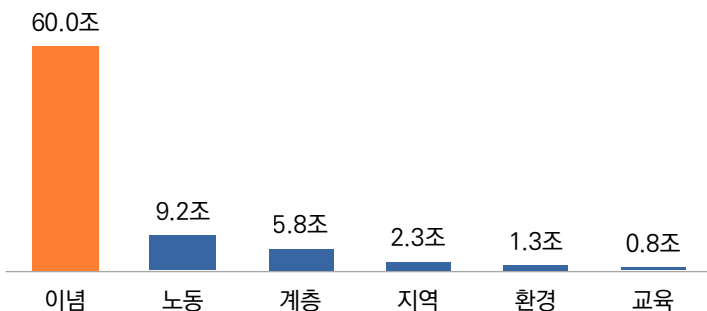
*넘버즈 270호 참조

Note)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참여자 수 X 발생 시간 X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갈등 비용을 추계

사회 갈등유형 중 '이념' 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 갈등유형별 연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념' 갈등이 60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용을 기록했다.
- 이념 갈등의 경우 가치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데다가,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갈등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탄핵을 둘러싼 사회 전반적인 이념 갈등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그림] 유형별 연평균 갈등 비용 (1990~2022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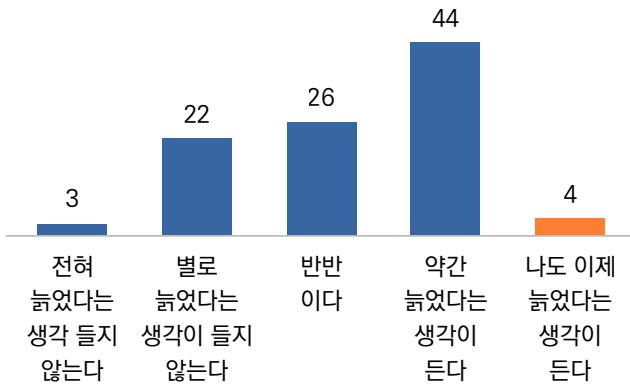
※출처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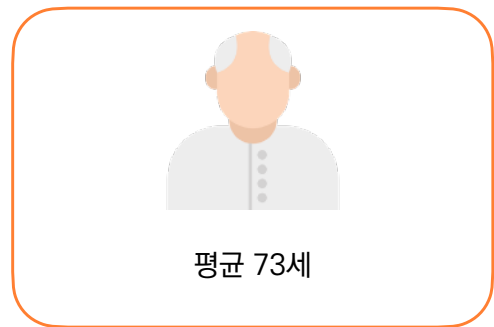
['나이듦'에 대한 5060세대의 인식] 5060세대가 생각하는 고령자(노인) 연령, 평균 73세!

- 5060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보고서(하나금융)가 최근 발표됐는데 이중 '나이듦'에 대한 인식 부분을 살펴본다. 이 조사는 상위 40%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 본인 스스로가 늙었다고 인식하는지를 묻은 결과, '늙었다는 생각이 듦'이 절반가량인 48%였고, 이중 '나도 이제 늙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 한편 5060세대가 고령자(노인)라고 생각하는 기준 연령은 평균 73세였다.

[그림] 늙음에 대한 자기인식 (5060세대, %)



[그림] 고령자(노인)의 주관적 기준 연령 (506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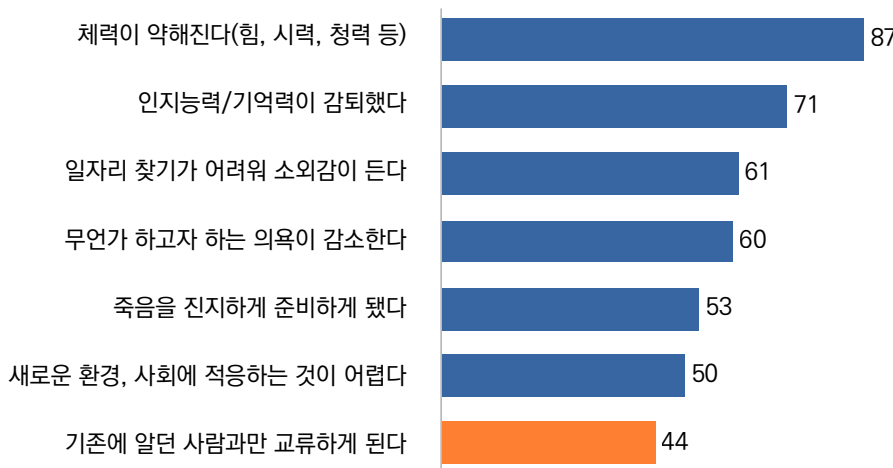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5060 시니어의 The Next 라이프, 2025.02.12.(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9.)

5060세대, 나이듦에 따라 '기존 알던 사람과만 교류하게 된다' 44%

- 50~60대가 되면서 겪을 수 있는 변화와 관련된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나이가 들 어가면서 '체력이 약해짐'에 대다수(87%)가 동의했고, '인지능력/기억력 감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소외감 듦',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 감소'에 60% 이상이 동의했다. 신체적 변화(체력적/정신적)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관계 문제에도 봉착하게 됨을 알 수 있고, '기존에 알던 사람과만 교류하게 된다'(44%) 등의 항목을 통해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을 엿볼 수 있다.

[그림] 나이듦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동의율 (5060세대,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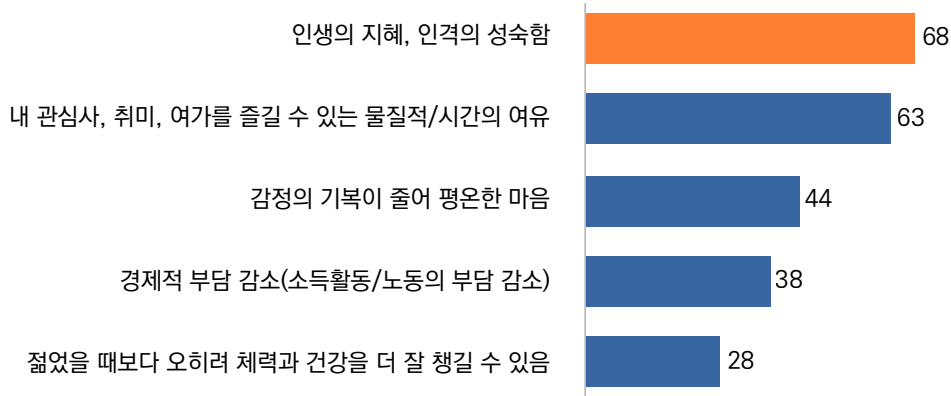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5060 시니어의 The Next 라이프, 2025.02.12.(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9.)

나이들어 좋은 점, 젊을 때보다는 ‘인격의 성숙함’ 경험해 좋다!

-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더 좋은 점은 없을까? 나이 들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에 관해 묻은 결과, 5060세대 10명 중 7명(68%) 정도는 ‘인생의 지혜, 인격의 성숙함’을 경험해서 좋다고 응답했고, ‘내 관심사,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물질적/시간의 여유’를 꼽은 비율도 63%였다. 그 외에 ‘감정의 기복이 줄어 평온한 마음’ 44%, ‘경제적 부담 감소’ 38% 등의 순이었다.

[그림]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좋은 점 (5060세대, 상위 5위, 중복응답, %)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5060 시니어의 The Next 라이프, 2025.02.12.(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9.)

2025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배화숙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경계를 의심하고 살림을 선포하다

오래전, 교회 청년 시절이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나라에 최초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많은 공단을 찾아갔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던 형님, 언니들 틈에 나도 자연스럽게 끼어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북한이탈주민 한두 가구를 방문해 정착을 돕는 자원봉사를 잠시 했다. 몇 년 뒤에는 다문화·다민족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한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사이 대형 교회들은 예배 동시통역을 도입하거나 여러 언어로 예배를 진행하며 다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명절이면 도심과 관광지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대학가에서도 몇 해 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들까지 가세해 더 많은 나라에서 유학생을 불러들이려 애쓰며, 졸업 후 정착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분위기다. 돌아보면, 나의 경험은 그저 이주민들의 언저리를 오가던 개인적 발걸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으로 온 나그네들은 '외국에서 출발했다'는 하나의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024년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인 2,660,783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며, 20명 중 1명이다.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인 566,961명이며, 임금근로자 약 2,169만 명 대비 2.61%에 해당한다. 즉, 100명이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중 2~3명이 외국인이라는 의미이다. 결혼이민자는 181,436명이며, 최근에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북한 이탈 주민 누적 입국자는 31,408명이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에서 '글로벌'이 기본값이 되면서 여행에서 정착을 위한 이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목적, 유입 경로, 출신 국가 비중, 성별 및 세대 비중 등이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번 글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민의 성격과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이주노동자와 우리 사이의 거리이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는 항상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이주민을 돕고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들도,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와 구별되는 사역이 무엇인지, 선교적 차원이나 이웃사랑 실천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두 얼굴, 인권·주권의 이분법 현실

인권 침해, 불법 체류, 송출 비리 등 문제가 많았던 산업 연수생 제도를 대신하여 2007년부터 고용 허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고용 허가 제도는 한국 정부와 2024년 현재 17개국 정부가 각각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 하에 최소한의 외국인을 수용하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사용자 측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임금 상승 등 기업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하였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허락한다고 하면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아 현대판 노예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29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614호\(2025년 3월 1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대통령제 개헌, 명태군 관련 특검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5호 \(2025년 3월 1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탄핵 심판 전망,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 등

[중도층 60%,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시사IN_2025.3.4.

사회 일반

[걱정·우울로 덮힌 한국사회…“내 이념은 중도” 절반 육박](#)

연합뉴스_2025.3.6.

[갈라진 20대 남녀… 지지 정당 엇갈리고, 상호 호감도 최악](#)

조선일보_2025.3.7.

[“중국 이미지 한 방에 바꾼 딥시크…한국, 직접 개발 강박 벗어나야”](#)

경향신문_2025.3.4.

[한국인들 해외서 돈 펄펄 쓰더니…'충격 전망' 나왔다](#)

한국경제_2025.3.3.

[한국인, 이주 노동자보다 北 이탈 주민에 더 거리감 느낀다](#)

조선일보_2025.3.4.

[‘39조2000억’…지난해 사교육비 역대 최대 경신](#)

국민일보_2025.3.6.

[아이 낳으면 1억원 내건 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연합뉴스_2025.3.9.

[해마다 단어 300개씩 잃어간다…일상대화 얼마나 하십니까](#)

한겨레_2025.3.4.

청년 · 청소년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행복'보다 '슬픔·공포"](#)

연합뉴스_2025.3.11.

[\[단독\] 미성년 성폭력 범죄 ‘역대 최대’인데…법원에선 특하면 ‘증거 부족’ 무죄](#)

매일경제_2025.3.4.

[우울증 10명 중 3~4명은 2030...자살률 가장 높은 계절, 겨울 아니다?](#)

조선일보_2025.3.6.

노인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받는다…이런 수급자 5만명 육박](#)

연합뉴스_2025.3.1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日 앞지른 韓대기업 연봉, 인상률 EU의 2배](#)

동아일보_2025.3.6.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연합뉴스_2025.3.10.

[월 100만원도 못버는 '사장님'...사상 첫 900만명 넘었다 \[2025 자영업 리포트\]](#)

중앙일보_2025.3.11.

[\[경제안보지표\] 가정경제 인식 -17, 국가경제 인식 -64](#)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3.4.

[K-푸드 수출액...라면이 13억6천만달러로 1위](#)

연합뉴스_2025.3.6.

건강

[블랙핑크 지수 “아무리 바빠도 욕조에서 ‘이것’ 꼭 해”... 혈액순환에 최고?](#)

조선일보_2025.3.9.

기독교 · 종교

[‘거룩한 습관’ 가정에배로부터... 부모·자녀 함께 ‘눈높이 교제’](#)

국민일보_2025.3.4.

[교인 10명 중 2명 “가족·지인 이단에 빠진 적 있다”](#)

국민일보_2025.3.4.

트렌드

[고물가가 흔드는 미식 트렌드 '맛있는 사치'는 계속될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2.27.

[일 줄어든 지게차 기사...“바짝 벌자” 3시간 알바](#)

중앙일보_2025.3.5.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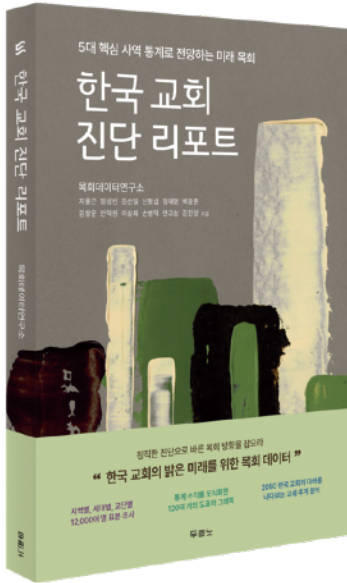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연구소 소식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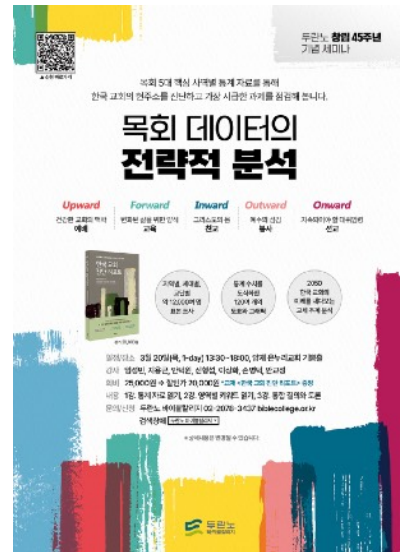
[두란노]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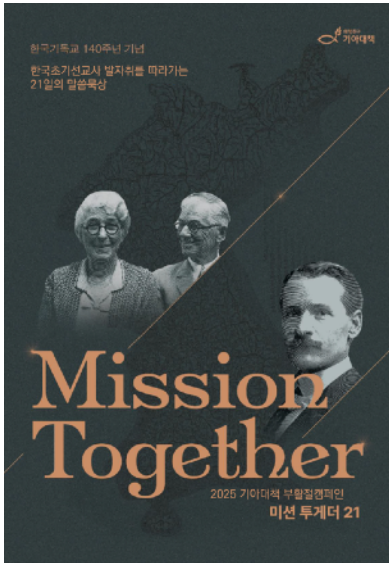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두란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 5대 핵심 사역별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점검해 보는 세미나입니다.

- 1) 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13:30~18:00
- 2) 장소 :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 3) 대상 :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리더
- 4) 참가비 : 25,000원 → 20,000(20%할인)
- 5) 할인기한 : 2025년 3월 13일 목요일까지
- 6) 문의 :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02-2078-3437

*세미나 등록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책을 증정합니다.

세미나
신청하기





[기아대책] 2025 부활절 캠페인 <미션 투게더 21>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헌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미션 투게더 21> 묵상집을 제작했습니다.

- 1) 책자 신청 : QR코드로 신청
- 2) 기간 : 2025년 3월 26일(수) 마감
- 3) 문의 : 02-544-9544



부활절 캠페인



*카카오톡 '기아대책 미션파트너' 채널을 추가하시면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